

리딩 리서치의 변동성 장세 대응전략

< 신흥국 저평가 개선 시 주목할 업종과 종목은?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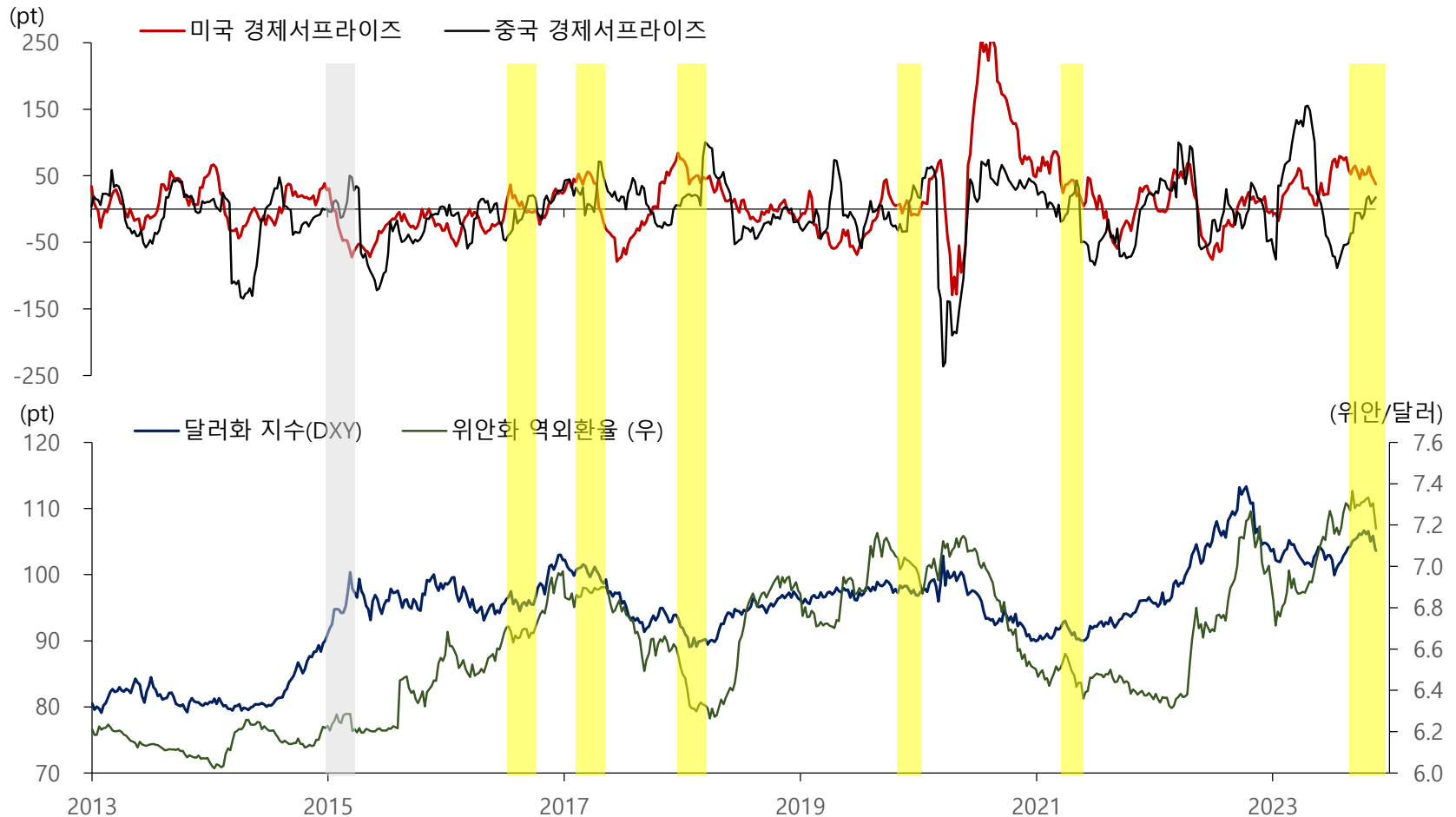
리딩투자증권 곽병열

2023.11.21

1 경제서프라이즈 상 美↓, 中↑ → 달러강세 완화 가능성 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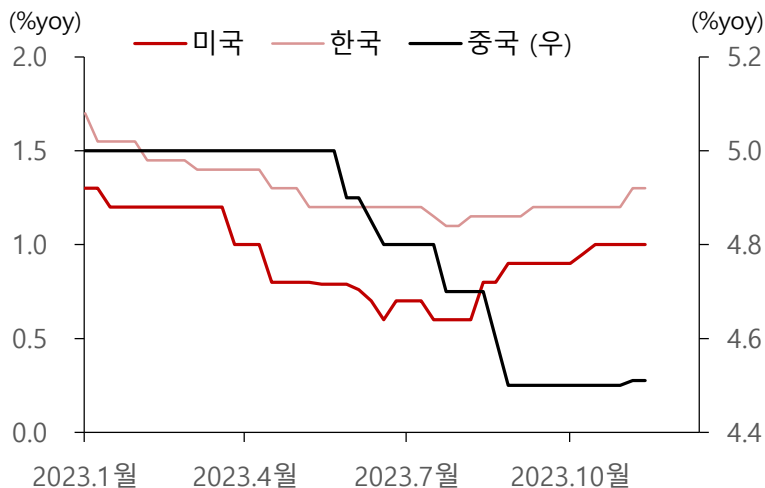
- 선행성 지표인 경제서프라이즈 지수 상 '미국 약화 & 중국 반등' 하는 탈동조화(Decoupling) 강화 중
→ 과거사례 상 달러강세 완화 → 달러강세 완화 시 신흥국 자본유출 개선 가능성

경제서프라이즈 지수 상 '미국 약화 & 중국 반등'으로 달러강세 완화 가능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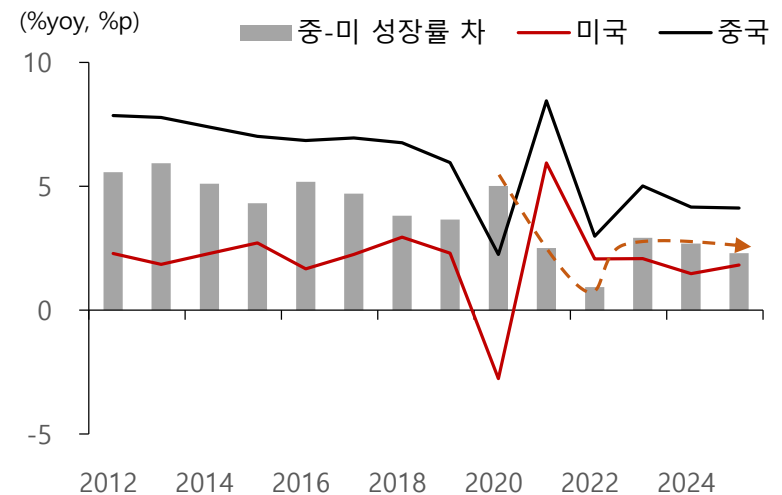
- 한-미-중 2024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 추이를 살펴보면,
 - 미국의 2024년 컨센서스는 올해 7월 이후 줄곧 상향조정이 지속된 반면,
 - 중국은 올해 5월 이후 큰 폭의 하향조정을 겪으면서 전문가들의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진 상황임
 - 따라서 경제서프라이즈 지수의 탈동조화 가능성은 높아짐
 - 2023년 이후 '중-미 성장률 차'는 더 이상 좁혀지진 않을 것으로 IMF는 추정

한-미-중 2024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 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IMF의 미-중 실질GDP 성장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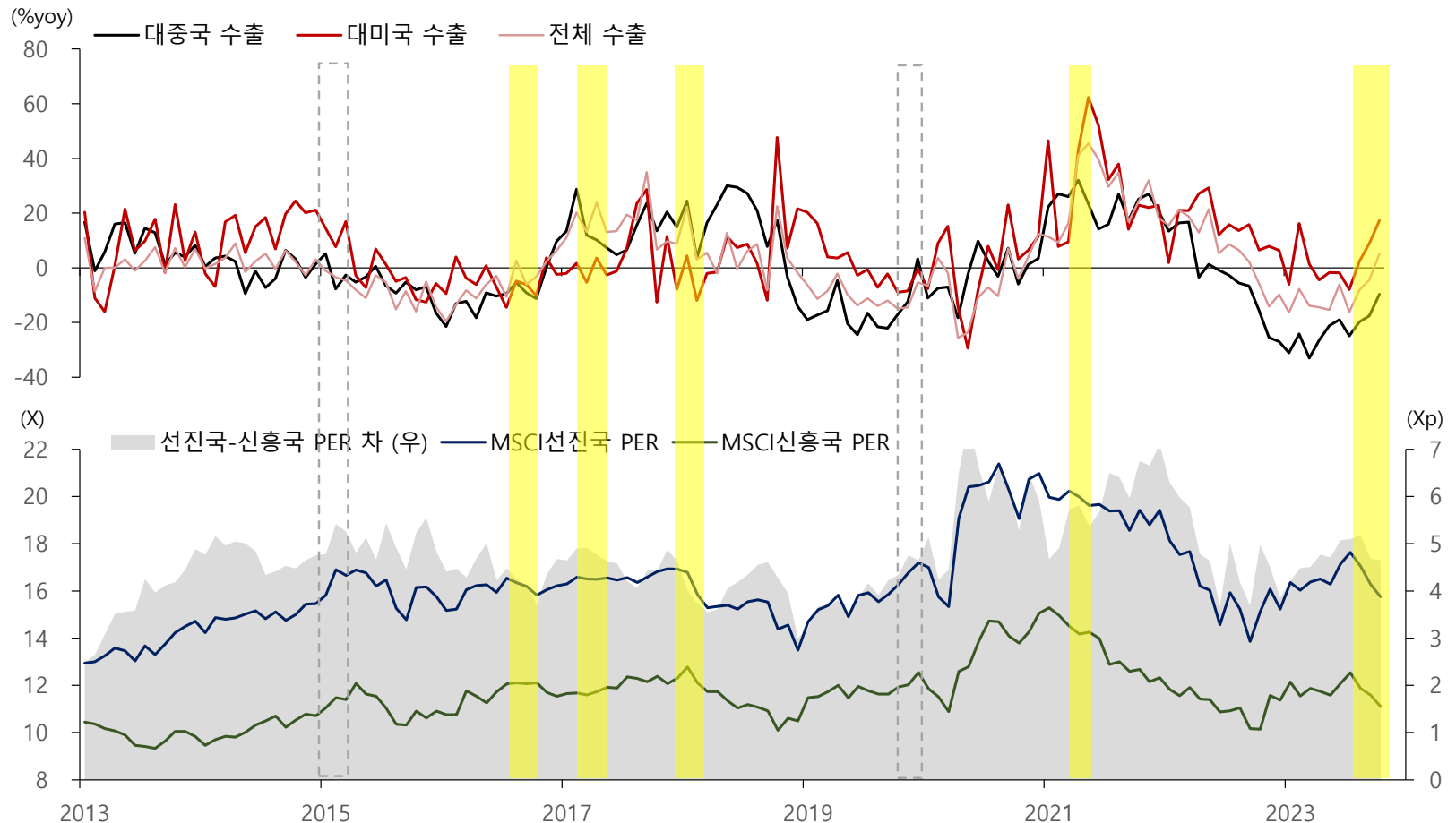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IMF, 리딩투자증권

신흥국 저평가 현상의 완화 가능성 → 대중국 수출 주목해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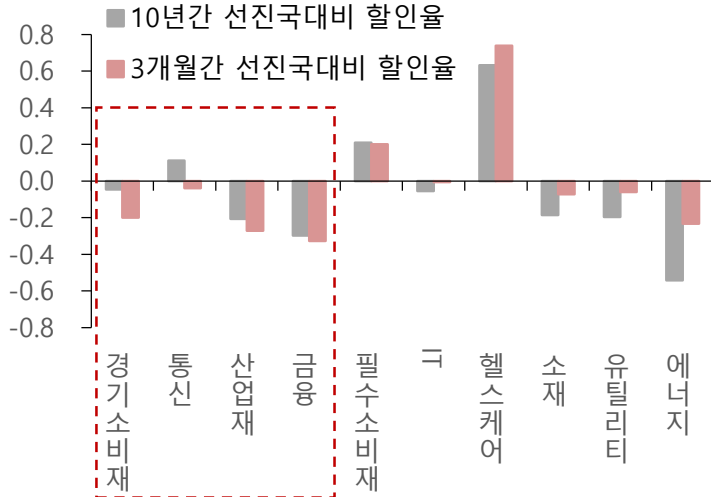
- 경제서프라이즈 상 '美↓, 中↑' 국면에서 달러강세 완화 영향으로 신흥국 저평가 현상도 동반 완화
→ **선진국과 신흥국 PER Gap ↓** → 대중국 수출증가율 역시 대미국 수출과의 간극을 줄이거나 초과

경제서프라이즈 상 '美↓, 中↑' 국면의 특징: 신흥국 저평가 현상의 완화와 대중국 수출의 상대적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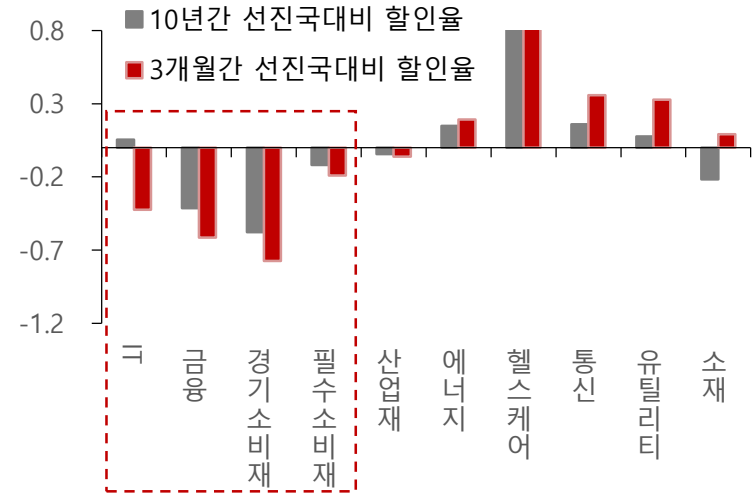
-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업종지수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선진국 대비 평균 할인율보다 최근 더 저평가된 업종은?
 → 신흥국 업종지수의 경우 경기소비재, 통신, 산업재, 금융
 → 국내 업종지수의 경우 IT, 금융, 경기소비재, 필수소비재
- 신흥국 저평가 현상 완화는 곧 밸류에이션의 평균회귀(mean reversion)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.
 해당 업종은 일정수준까지 재평가될 가능성에 주목

신흥국 PER(예상) 기준 선진국 대비 할인율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한국 PER(예상) 기준 선진국 대비 할인율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선진국 대비 PER 저평가 현상이 두드러지는 IT, 금융, 경기소비재 업종 내에서,
→ 최근 3개월간 FY24 PER 저평가 심화되었으나,
오히려 적정주가는 상향된 외국인 선호 종목군에 주목

선진국 대비 PER 저평가 업종 내에서 투자매력도 큰 종목군

Name	FY24 PER (3M Chg) (%)	적정주가 (3M Chg) (%)	외국인매수강도 (%)
유비벨록스	-24.44	15.22	1.93
솔루엠	-23.69	8.26	1.53
대신증권	-19.33	21.43	0.02
가온칩스	-19.13	33.33	0.14
하나마이크론	-18.39	38.00	3.42
하나기술	-16.49	55.12	0.77
한샘	-14.81	9.09	0.24
현대백화점	-13.04	0.12	0.87
넥센타이어	-12.77	0.93	0.52
명신산업	-12.38	4.55	1.96

자료 : Dataguide, 리딩투자증권

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-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무단복제,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.